

AP-11

삼국시대의 메뚜기(蝗) 기록에 대한 문화생태학적 접근

윤일, 문태영

고신대학교 생명과학과

삼국시대에 관한 역사서 중에서 삼국사기(三國史記)는 비교적 상세한 국가적인 연대기와 사건을 추정할 수 있는 문헌이다. 특히 당시의 생태계의 구조나 생물다양성에 관한 유추나 복원도 부분적으로는 가능한 힌트가 여러 부분에서 발견되어 과거의 우리나라 생태계 구조를 추적하는데 고무적인 면이 있다. 여러 기록 중에서 우선 흥미로운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존재로 생각되었던 생물 중에 곤충이 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蝗의 출현을 언급하는데, 이蝗은 메뚜기의 일종을 의미한다.蝗은 특히 대발생하여 민생과 국가의 안녕과 질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蝗의 대발생은 작물의 수확에 피해를 주는 바 심각한 흉년의 원인이 되어 삼국의 백성들이 국가를 바꾸어 이민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당시의 백성은 국가를 이루는 근간이므로 국가에서 백성들을 진작하기 위해 구휼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관련 관리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를 시켰던 기록도 있다.蝗의 대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농작물은 당시 전답의 입지적 조건과 경작방법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ecological theatre를 연출하여 본 결과, 당시 대발생하는蝗은 산지와 초지의 전이대(transition area)를 선호하는 종으로 주로 논농사에 의한 벼가 아니라 밭농사에 의한 다양한 작물이 피해의 대상이 된다. 계절적으로도 대발생은 갈수기를 지난 다음에 오는 우하기 직후이므로 현재로 보아서는 8월 이후에 완전성체가 출현하는 종일 가능성이 크다. 또 우리나라에서 집단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메뚜기종은 5-6종으로 압축되지만, 여러 조건으로 보아 *Locusta migratoria* 풀무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형적, 기후적인 특징을 고려하면, 북아프리카,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보고되는 메뚜기의 대발생으로 인한 피해와는 다르게 메뚜기의 대량 발생의 원인이 되는 반복되는 세대의 순환이나 빠른 성숙에 많은 영향을 주는 수분의 공급이나 일정한 온도의 유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고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蝗의 대발생은 부분적으로는 메뚜기의 군거상적 성향을 야기하는 농업방식에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